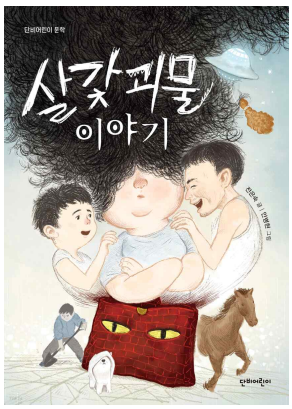


살갗 괴물 이야기

* 글 : 전은숙
* 그림 : 안병현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정가 : 12,000원
* 분량 : 128쪽
* 대상 : 초등학생

· 책 소개

조금은 엉뚱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한
사랑의 여러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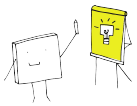
'사랑'이라 하면 보통 밝고 따뜻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생각할까? 항상 바쁘고 피곤하고 '사랑해'보다 '공부해라'를 더 많이 말하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한다. 전은숙 작가의 이번 책은 부모가 주는 사랑과 자녀가 느끼는 사랑의 모습, 또 가족 안에 존재하는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그린 단편집이다.

엄마를 잡아먹고 엄마의 살갗을 뒤집어쓴 채 나타난 괴물(『살갗괴물 이야기』), 치킨 집 아들인 주인공 앞에 나타난 외계인(『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 엄마가 아기처럼 애지중지하는 악어가죽 명품 가방(『이태리 악어가죽 핸드백을 아세요?』), 전쟁터에 나간 아빠를 기다리다 말이 된 아이(『말이 되어』), 개가 된 착한 아들(『선생님께』), 모래사막에서 비를 기다리는 아이(『굿모닝, 몽골』) 등 여섯 편의 이야기는 익숙한 소재이면서도 약간의 비현실적 요소를 가미해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 이야기의 즐거움에 빠져 읽다가도 책을 덮을 즈음엔 '내가 생각하고 믿는 사랑의 모습은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 훅 들어오는, 주제 전달의 임팩트가 있는 작품이다.

· 주요 독후활동

살갗 괴물 이야기

책 속으로	· 살갗 괴물 이야기 ·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 · 이태리 악어가죽 핸드백을 아세요? · 말이 되어 · 선생님께
토론&논술	· 죽은 동물의 가죽은 사용해도 될까?
사고력 쑥쑥 키우기	· 등장인물 인터뷰하기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표지 그림 속 가운데 그려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2. 살갗 괴물은 어떤 괴물일 것 같나요? 살갗 괴물은 무엇을 먹을까요?

※ (3~5)《살갗 괴물 이야기》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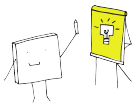
조금은 엉뚱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한 사랑의 여러 얼굴

어느 날부터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어떤 모양일까, 어떤 색일까, 어떤 맛일까.
세상에는 사랑이 가득 흐른다고 하니 눈을 크게 뜨고 찾으면 보일 것도 같았어요.
이 책에 실린 동화는 그렇게 제가 찾아낸 사랑들이에요.
사랑은 하나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여러 모습과 다른 맛을 내면서 세상 곳곳에 묻어 있었어요.
이 많은 모습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3.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나요?

4. 3.에서 말한 사랑은 어떤 모양일까요?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5. 3.에서 말한 사랑의 색깔과 맛은 어떨까요?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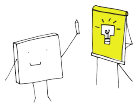
독서 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을 즐기며 읽기

- 공감하는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인상 깊은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자신의 생각을 쓰며 읽기
-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떠올리며 읽기

1. 《살갗 괴물 이야기》에 실린 이야기 중 하나를 골라 공감하거나 하지 않는 내용, 인상 깊은 내용, 자신의 생각,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등을 정리해 봅시다.

공감하는 내용	공감하지 않는 내용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독서 후 어휘력 쑥쑥 키우기

※ 책에 나오는 어휘를 익혀봅시다.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언제 봤다고 ①꼬박꼬박 반말이다.
- 엄마는 내 손을 가져다 가방 ②표면을 만지게 했어요.
- 어느 날은 ③아군이 이겼다고 했다.
- 걷는 도중에 돌이 [번번이] 빠져 나는 자꾸 ④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 그런데 이런 ⑤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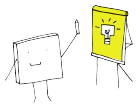
1. 밑줄 친 각 낱말은 어떤 뜻으로 쓰였을지 알맞은 뜻과 연결해보세요.

① 꼬박꼬박	•	• ㉠ 노엽거나 분한 마음.
② 표면	•	• ㉡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아군	•	• ㉢ 사물의 가장 바깥쪽.
④ 부아	•	• ㉣ 조금도 어김없이 고대로 계속하는 모양.
⑤ 청천벽력	•	• ㉤ 우리 편 군대.

2. [ ] 속 낱말 '번번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매 때마다.

이를 참고로, '번번이'를 넣어 문장을 지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살갗 괴물 이야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는 소파에 벌렁 드러누워 자려고 했어요. 잡아먹은 여자가 더부룩한 게 소화가 잘 안 됐어요. 작은 남자, 그러니까 그 집 애가 나를 피해 슬금슬금 방으로 들어가길래 내가 불러 세웠죠.

"너!"

애는 깜짝 놀라며 내 눈치를 봤어요.

"네?"

"소화제 어딨는지 아니? 참, 그보다 네 이름이 뭐니?"

별 뜻 없었어요.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건데 얘가 갑자기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보면 내가 울린 줄 알 거 아니에요.

"엄마, 내가 공부 못한다고 진짜로 엄마 안 하는 거야?"

(나) "악! 들켜 버렸어!"

나는 괴로워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여자 살갗을 가져오더니 나한테 내밀었어요.

"입어요."

내가 더 놀랐죠. 나는 발부터 집어넣고, 팔을 끼우고 마지막에 머리를 넣었어요. 이번에는 경민이가 천천히 내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머리끝까지 끌어올려 주었어요. 경민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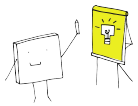
"엄마……."

얼어붙은 나를 경민이가 끌어안았어요.

1. 살갗 괴물이 먹은 '경민이 엄마'는 평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민이 아빠와 경민이의 행동을 보고 유추해서 적어 보세요.

2. (나)에서 경민이 아빠와 경민이는 괴물이 엄마 탈을 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모른 척 해 준 걸까요?

3. (나)에서 내가 경민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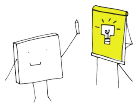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우주야, 전단지를 돌리자. 냉장고에 딱 붙일 수 있게 자석 있는 걸로. 우리도 과감하게 투자해 보는 거야."
"아버지, 참 좋은 생각이에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그럼 어떤 글귀를 넣을까? 우주 네가 생각해 봐라."
이럴 줄 알았다. 나는 대충 멋대로 연습장에 휘갈겼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우주네 치킨! 뭐 이런 거요?"
아버지가 고개를 흔들더니 공책과 연필을 확 낚아챘다.
"이 아버지 닭이 겨우 대한민국에서 놀겠냐? 아들이란 놈이 아버지를 그 정도로 취급하다니. 자, 이렇게 고치자. 지구에서 제일 맛있는 우주네 치킨! 으하하-."

(나) "맛있대. 우주에서 최고로 맛있는 집 맞대. 혹시 그 안에 이상한 양념 같은 거 넣은 거 아니지?"
아버지는 기분 좋게 큰소리 뻥뻥 쳤다.
"이상한 양념은 무슨.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에서 최고로 맛있겠지. 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먹이던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해 튀겼거든."
며칠 후, 아버지는 가게 앞에 큰 현수막을 붙였다.

1. (가)에서 아버지는 전단지에 들어갈 글귀를 만듭니다. 내가 치킨집을 한다면 나는 어떤 광고 문구를 만들 건가요? 어떻게 적어야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문구를 넣어, 전단지를 완성해 보세요.

2. (나)에서 현수막의 문구는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말이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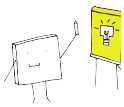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드디어 수백 개로 나눠진 몸의 조각들이 바닥에 닿았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것들이 서로 바뀌어 조합되기 시작했다.
하나씩 하나씩 몸의 조각이 맞춰졌지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귀가 쑤욱 커지고 두 팔이 다리로 변했다. 온몸에 갈색의 털이 덮이고, 네 개의 발바닥에 발굽이 생겼다. 긴 머리털 같은 꼬리가 생겼고, 목덜미에는 갈기가 달렸다. 아버지에게 빨리 가려는 마음이 급했나 보다.
나는 말이 되었다.

(나) "그런데 너는 누구 편이니?"
"그런 거 몰라요. 누구 편이어야 하나요?"
"그래. 세상은 누구의 편이든 돼야 해. 그래야 싸우지."
"난 싸움 못해요."
"그럼 누구든 널 짓밟고 오를 거야. 세상은 그래."
"나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난 싸우는 것 못해요. 전쟁도 몰라요, 난 그냥 우리 아버지를 찾고 싶어요."
"너는 아버지를 찾을 수 없을 거야."
"왜요?"
나는 울먹이듯 병사에게 되물었다.
"자기 편인 걸 알아야 도와주지."

1. '나'는 왜 말이 되었을까요? '나'가 말이 된 이유는 무엇일지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2. (나)에서 병사는 '나'에게 세상에서는 꼭 누군가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편이 되어야 도와줄 수 있다고요. 만약 내가 글 속의 '나'라면 병사에게 무어라고 대답하고 싶은가요? ☐에 들어갈 말을 채워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선생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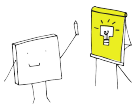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분명 다른 아이가 받아야 할 벌을 우리 윤석이가 대신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전혀 문제없이 행복한 집이니까요.
어제 오늘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지금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동안 개를 키웠던 것인지, 윤석이를 키웠던 것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귓가에는 윤석이가 몇 번 툭툭 던졌던 말이 떠오릅니다. 뭐 별다른 말은 아니었어요.
"엄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꼭 안아 주면 안 돼?"
"엄마, 나 동굴 같은 데서 계속 자고 싶어."

(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윤석이가 개가 되었다는 말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반 아이들 입단속 철저히 시켜 주세요. 지난번 학부모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때 교장선생님께 선생님 칭찬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 일만 해결되면 교육청 장학사로 있는 제 선배에게 따로 전화도 넣겠습니다.
선생님, 당분간 윤석이가 결석한 것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말아 주세요. 윤석이가 개가 된 흔적이 어디에도 남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사례는 톡톡히 하겠습니다.

1. '개'가 되기 전, 윤석이는 어떤 생활을 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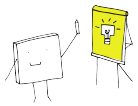
2. 내가 윤석이의 선생님이라면 윤석이 엄마에게 무어라 답장을 보낼 것 같나요? 윤석이의 선생님이 되어 답장을 써 보세요.



독서 후 토론&논술_ 죽은 동물의 가죽은 사용해도 될까?

※ <이태리 악어가죽 핸드백을 아세요?>에는 악어가죽으로 만든 가방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어가죽 가방 하나를 만드는데 악어 3마리의 가죽이 필요하다고 해요. 악어가죽 가방을 만들 때는 살아 있는 악어의 가죽을 벗겨서 만들죠. 그래서 최근에는 죽은 동물의 가죽만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다면 죽은 동물의 가죽은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리해 보세요.

죽은 동물의 가죽은 사용해도 될까요?	
<찬성 측 중심 생각> 죽은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가죽을 사용해도 괜찮다.	<반대 측 중심 생각> 죽은 동물이라도 사람 마음대로 가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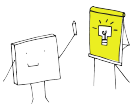
독서 후 사고력 쑥쑥 키우기

1. 이야기 중 하나를 골라,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제목	

2. 여섯 가지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인터뷰해 보세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가요? 등장인물들은 어떤 대답을 해 줄까요?

인터뷰 대상	질문	대답
<살갗 괴물 이야기> 살갗 괴물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 우주		
<이태리 악어가죽 핸드백을 아세요?> '나'		
<말이 되어> '나'		
<선생님께> 윤석이 엄마		
<굿모닝, 몽골> 저우양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table>
<tr><td>2쪽</td><td>1. (예시 답안) 살갗 괴물이 아닐까? 머리카락이 아주 긴 괴물인 것 같다.
2. (예시 답안) 털이 아주 많은 괴물일 것 같다. 사람들의 살을 먹는 괴물이라 살갗 괴물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도 같다.
3. (예시 답안) 엄마
4. (예시 답안) 평소에는 동그랗지만, 가끔은 뾰족한 모양.
5. (예시 답안) 무지개색, 사탕처럼 달콤하고 때로는 새콤한 맛.</td></tr>
<tr><td>3쪽</td><td>1.
<table>
<tr><th>공감하는 내용</th><th>공감하지 않는 내용</th></tr>
<tr><td>예시 답안) <살갗 괴물 이야기>에서 경민이가 엄마의 눈치를 보는 장면이 공감되었다.</td><td>엄마에게 한 마디도 못하고, 엄마 말대로만 행동하는 아빠와 경민이의 행동은 공감이 가지 않았다.</td></tr>
<tr><th>인상 깊은 내용</th><th>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th></tr>
<tr><td>살갗 괴물이 엄마를 삼켜 버리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td><td>마지막에 살갗 괴물인 줄 알면서도 엄마로 받아들이는 경민이의 행동은 괴물로 바뀐 뒤 엄마가 더 좋아서 그런 것 같다.</td></tr>
<tr><th colspan="2">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th></tr>
<tr><td colspan="2">나도 가끔 엄마한테 혼날 때, '엄마가 다른 사람이 되어 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래도 엄마가 괴물이 되는 건 싫다.</td></tr>
</table></td></tr>
<tr><td>4쪽</td><td>1. ① 꼬박꼬박 ㉣
② 표면 ㉢
③ 아군 ㉡
④ 부아 ㉠
⑤ 청천벽력 ㉤
2. (예시 답안) 번번이 이렇게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td></tr>
<tr><td>5쪽</td><td>1. 예시 답안) 경민이 아빠에게는 돈 벌어 오라고 매일 구박하고, 경민이에게는 공부만 하라고 했을 것 같다.
2. 예시 답안) 이전에 엄마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살갗 괴물을 통해 느꼈기 때문에 괴물을 엄마로 받아들인 것 같다.
3. 예시 답안) 나도 살갗 괴물을 엄마로 받아들였을 것 같다. 낳아 준 엄마보다 진정한 사랑을 주는 존재가 엄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td></tr>
<tr><td>6쪽</td><td>1. (답안 생략)
2. 예시 답안) 외계인도 인정한 맛 집! 아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듭니다!</td></tr>
<tr><td>7쪽</td><td>1. 예시 답안)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달려가고 싶어서, 빨리 달리는 말이 되었다.
2. 예시 답안) 난 누구의 편도 아니고, 또 모두의 편이에요. 모두가 같은 하나의 편이면 안 되는 건가요?</td></tr>
<tr><td>8쪽</td><td>1. 예시 답안) 공부하느라 제대로 잠도 자지도 못하고, 엄마가 바빠서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
2. (예시 답안) 윤석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석이 담임입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이는 평소에 마음껏 쉬지도 못하고, 공부만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강아지가 된 것 같아요.
윤석이를 푹 쉬게 해 주시고, 많이 안아 주시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td></tr>
</table>

	그리고 앞으로 또 강아지로 변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줄이고, 하고 싶은 일들을 윤석이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이 담임 ***드림
9쪽	**<찬성 측 근거>** 동물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나 옷은 튼튼하고 따듯하다. 게다가 살아 있는 동물도 아니고 죽은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면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다. **<반대 측 근거>** 죽은 동물이라도 자신의 몸이 가방이나 옷으로 쓰이길 바라지 않을 것 같다. 또 죽은 동물의 가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일부러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 같다. 또 만약 동물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죽을 사용하면 병이 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10쪽	예시 답안) **살갗 괴물 이야기** 심장이 뛰기 시작한 살갗 괴물은 정말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된 살갗 괴물을 경민이와 경민이 아빠는 이전 엄마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이 되었다. 경민이와 아빠는 살이 오동통하게 올랐고, 살갗 괴물은 가족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예시 답안) **<살갗 괴물 이야기> 살갗 괴물** 질문: 남편과 경민이에게 들킨 후로도 계속 살갗을 먹었어? 대답: 아니.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이랑 똑같아졌어. 다시는 살갗을 먹지 않았어. 진짜 엄마가 되었지.